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 지 원	학번	
이메일	Polestar0418@naver.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Leeds / International Relations	(국가) 영국
기 간	2021.1.1.~2021.12.31.	[귀국일: 2022년 1월 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월 30일

신 청 인 : 김 지 원 (인)

1. 초기 생활적응

리즈는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5시간정도 소요됨. 주변 도시로는 요크와 맨체스터 등이 있으며, 리즈 자체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함은 없음. 코스트코, 이케아 등 국제적 체인도 있고, 테스코, 모리슨 등 마트는 물론, 재래시장도 있어서 생필품 구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 또한 아래로는 런던, 위로는 에딘버러까지 이어지는 기차역과 유럽 곳곳으로 향하는 리즈공항이 있어서 교통도 매우 편리함. 본인은 한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때도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런던 히드로 공항이 아닌, 리즈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음. KLM항공이 운행하는 인천-암스테르담-리즈 노선을 이용하였고, 귀국시에도 리즈-암스테르담-인천 노선을 이용하였음. 비록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직항노선은 아니었지만, 히드로 공항에서 리즈까지 오는데도 만만찮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편리하게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었음. 암스테르담에서 경유시간도 4시간정도라 부담스럽지 않았음. 리즈공항은 작은 공항이라 큰 공항처럼 붐비지 않기 때문에 여유있게 입국수속을 할 수 있었으며, 짐도 찾을 수 있었음. 특히 리즈대학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해 리즈공항에서 숙소까지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해 줌. 약 30분내외로 택시 등을 이용해 리즈 시내에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었음.

리즈는 영국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선선한 날씨임. 다만 대부분의 영국날씨와 마찬가지로 예고없이 비가 자주 내리며 영국 특유의 흐린 날씨가 많음. 여름의 경우 날씨가 매우 좋고, 해가 떠 있는 시간도 길어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음. 새벽 5시 경부터 저녁 9시까지 환한 날씨가 이어져 생활은 물론 여행다니기에도 최적의 날씨임. 다만, 10월 이후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겨울에 접어들면, 거짓말처럼 해가 짧아짐. 오후 4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긴 밤이 지속되고, 한국처럼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으슬으슬한 추위가 계속됨. 특히 매일 비가 내려서 더욱 체감온도는 낮아짐. 바깥 기온에 비해 내부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춥게 느낄 여지가 있음. 또한 영국의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대다수이며, 난방을 온돌형식이 아닌 라디에이터로 하기 때문에 한국식 난방보조기구인 전기매트, 따수미 텐트 등이 필요함.

2. University of Leeds의 교육의 질 및 인상

리즈대학은 러셀그룹(Russell Group)소속 학교로 영국내 순위가 꽤 좋은 학교 중 하나임. 560개의 학부과정과 300여개의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은 KDIS와 MOU가 체결된 Schoo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MA International Relations 전공을 선택함. 보통 KDIS 학생들은 1월에 2년차 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9월에 시작하는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중간에 합류하게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해당 학과의 학기가 2020년 9월에 시작하지 못하고, 2021년 1월에 시작하게 되서, 본인 또한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기를 시작하고 끝마치게 됨. 리즈 국제정치학부(POLIS)는 개발학, 국제관계학, 정치학과가 중심이 되는 학부이며, 각 학과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전공들이 있음. 이중 국제관계학을 중심으로는 국제관계학, 안보학, 테러리즘 등 국제관계와 안보를 다루는 전공이 파생됨. 각 영역에서 전문가인 교수들이 강의를 하며, 모든 과목에 필수적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어, 모든 학생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능력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됨. 도서관과 학교 시설도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됨.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교류는 제한적이었음. 비대면으로 그룹프로젝트와 발표도 했지만,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 물론 학교측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줬음. 학생마다 1명씩 Tutor 교수님을 배정

해줘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통해 학과과정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본인의 경우 1월에 출국을 해야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부득이 5월로 출국을 미뤘는데, 그 때 발생한 기숙사 이슈도 Tutor 교수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수강신청은 한국과 유사한 선착순 시스템 임. 공지한 일시에 수강신청 사이트를 오픈하면 듣고 싶은 과목을 클릭하면 됨. 리즈대학교의 학사일정은 총 3학기로 구성되어 있고, 1,2학기에는 수업을 들으며 논문을 준비하고, 3학기째 논문을 완성하는 논문학기로 되어 있음. 총 180credit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업은 30credit이고, 논문은 60credit임. 이에 따라 수업은 4과목을 들어야 하며 이중 학과에 따라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필수과목 외 남은 credit은 선택과목을 통해 채울 수 있음. 수업자체의 강도는 높지 않음. 평가 또한 학기말에 제출하는 에세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며 학기중에 미리 에세이를 준비해 놓는다면 수업과 평가자체의 부담은 크지 않음. 다만 논문의 경우 에세이에 비해 분량이 2배 이상(12,000자)이고 지정된 Supervisor와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수정,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음. 이에 따라 미리 논문 주제와 방향설정, 참고문헌 등을 확인 해 놓는다면 논문 스케줄을 따라가기 수월하겠지만, 기한에 임박해서 진행을 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수업의 경우 Lecture와 Seminar로 구성되어 있고, 코로나 시기에 Lecture는 레코딩을 해서 업로드를 해줬고, Seminar는 Zoom이나 Team 등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하거나 대면수업이 허용되는 경우 학교에 직접 가서 토론과 발표 등을 진행하였음.

4. 기숙사 및 음식에 대한 평가 등

주택임차 옵션은 학교기숙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사설기숙사 혹은 외부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학교기숙사를 이용하면 가구가 모두 갖춰진 집을 사용할 수 있어서 단기간 머무르는데 매우 효과적임. 또한 관리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음. 다만 학교기숙사의 특성상 1인 혹은 2인을 위한 규모가 많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 가족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음. 외부 업체를 통한 가족기숙사를 학교에서도 알선해주는데 외부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음. 본인은 방2개인 가족기숙사를 1달에 약 £850(약130만원)에 사용 했었음. 어린자녀 2명이 있었는데, 충분한 규모였다고 생각함. 물론 더 큰 자녀들이 있는 경우 넓은 가족기숙사 선택 옵션도 있음. 가족기숙사의 큰 장점으로 가족과 함께 유학 온 비슷한 처지의 국제학생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임. 우리 기숙사는 주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국적(카자흐스탄, 중국, 수단 등)의 가족들과 적당한 교류를 할 수 있었음. 또한 비상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서 일과 시간 이후에 집에 일이 생겨도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음. 본인의 경우에도 저녁 8시쯤 갑자기 전기가 안들어왔었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난방, 온수는 물론 오븐도 켜지지 않는 상황이었음. 정규오피스는 모두 퇴근하였지만, 당직자가 있었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족 기숙사이지만, 학교별로 넉넉히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함. 학교의 최종오퍼를 받게 되면 기숙사 신청 자격이 주어짐. 기숙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가족기숙사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순서대로 순번이 주어지게 됨. 빈방이 생겼을 때 기숙사 담당이 기숙사 순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서 입주희망 의사를 확인함. 이 때 입주희망 의사를 밝힌 사람 중 순번에 따라 기숙사를 배정받게 됨. 기숙사 계약 시 Deposit을 내야 함. 우리나라의 보증금과 같은 개념이지만 큰 액수는 아님. 퇴실 시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돌려주며 본인도 큰 문제없이 돌려 받았음.

영국은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한 나라여서, 음식이야기는 딱히 할 것은 없음. 주로 밖에서 사먹기 보다는 집에서 한식을 해먹었는데, 아시안마트가 근처에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해먹는데 큰 무리는 없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유학이지만 가족과 함께 갈 경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됨. 날씨가 좋은 여름방학에 주로 많은 곳을 다니게 되는데,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음. 조그마한 중고차를 구입해서 영국 곳곳을 다녔음. 또한 코로나가 조금 완화 되었을 때는 유럽지역도 다녀왔음. 아이들이 조금 더 컸었다면 차를 가지고 유럽도 다녀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오래 차를 탈 수 없는 나이어서 유럽은 리즈공항을 통해 저가항공으로 다녀옴. 영국은 날씨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날씨가 좋다면 무조건 밖에 나가는 것을 추천함.

6. 전반적인 평가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2년차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돌아왔다고 생각함. 다만,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많은 교제를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 대면으로 함께 프로젝트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친해질 기회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보니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었음. 대면 수업이 열렸을 때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했지만, 중간중간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기도 했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음.

7. 비자, 출입국 등 해외생활

비자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오퍼가 들어오면 바로 준비를 해야함.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변수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넉넉히 두고 준비해야함. KDIS와 연계되어 있는 유학원에서 비자신청을 도와주니 잘 활용하면 편리하게 비자신청을 할 수 있음. 생각보다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혼자 하다가 실수 할 우려도 있고, 가족들 것까지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림. 크게 무리가 없다면 유학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영국은 위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였음. 한국과 달리 실내외에서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도 심각하게 하지 않음. 확진이 되었다 해도 10일간의 격리를 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 이에 따라 스스로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함. 반면, 한국과 같은 숨막히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음. 특히 영국의 인구 밀집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낮아서 원한다며 사람과 거의 마주치지 않고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음. 실외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본인과 가족들도 처음에는 철저하게 실내외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썼다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음. 물론 런던 등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잘 썼지만, 중심지가 아닌 외곽에서는 사람을 잘 마주치지 않고 마주치더라도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잘 쓰지 않았음. 출입국시에도 한국과 같은 철저한 확인과 제한은 찾아보기 힘들. 요구하는 서류만 완비되었다면 출입국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리미리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는 2년차 생활 임. 가깝게는 학교 교섭과 비자 신청 등 행정 절차부터, 멀게는 현지에서 사용할 집, 차와 같은 것들도. 또한 아직도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유학생생활이 되길 바람.